연꽃 만개한 7월, 전국은 지금 蓮花 세계

전국 사찰 · 지자체 등 '연꽃축제' 일제히 개최

'연(蓮)'은 불교의 꽃이다. 연못의 진흙 속에서도 맑은 꽃을 피워내는 모습에 부처님은 더러운 곳에서도 항상 맑은 본성을 간직하고 있는 청정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연꽃에 비유했다. 또한, 연꽃은 오랜 수행을 통해 번뇌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른 수행자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런 청아한 모습에 적지 않은 유학자들도 연꽃을 '화중군자(花中君子)'라고 칭송해 왔다.

7~8월이면 연꽃이 만개하는 시기다. 이에 맞춰 전국의 사찰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연꽃축제를 개최해 연꽃의 매력을 국민들에게 전한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일관)는 7월 16일 경내 일원에서 '제14회 행복바라미 봉선사 연꽃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이 참가할 수 있는 그림 그리기 ·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며, 저녁 7시부터는 특별무대에서 뮤지컬 스타 전수경 씨와 전문 뮤지컬 배우가 함께 하는 뮤지컬 갈라쇼 · 판소리와 드럼의 플래시 공연 등이 진행된다. 또한 연꽃셀카포토대회 · 108보물찾기 · 사찰음식 시식 및 전시 · 전통등(燈) 전시 등 상설프로그램도 마련된다. (031)527-1951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주지 석암)는 7월 30일 '2016 서울 연꽃문화대축제'를 연다. 캐리커쳐 · 한지 공예 · 페이스 페인팅 · 차 시음 · 스님의 가훈 써주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경내 특설무대에서는 산사음악회도 열릴 예정이다. (02)392-3007

김제 청운사(주지 도원)도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하소백련지 일원에서 '2016 하소백련축제'를 연다.

하소백련축제에서는 백련음식 · 다례 · 천연염색 등 연을 이용한 행사와 연을 테마로 한 조형미술전 · 백련사진전 · 회화전이 열린다. 또한 불교조각전과 해금 연주 · 퓨전밴드 연주, 그리고 군산예술단의 공연 및 시낭송회 · 품바 공연 등의 행사가 펼쳐진다. (063)542-8943

지자체들도 잇달아 대규모 연꽃 축제를 연다. 백련으로 유명한 무안군은 오는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회산백련지 일원에서 '백련의 향기, 백년의 사랑'을 주제로 연꽃축제를 개최한다.

봉선사 16일, 봉원사 30일 개최
불자 · 시민 위한 체험 · 공연 '다채'
부여 · 무안 등도 연꽃축제 한마당

올해로 20회째를 맡는 무안군 연꽃축제 개막식에서는 결혼 50주년을 맞는 부부 9쌍을 초청해 금혼식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밖에도 황토골 무안요리 경연대회, 군민노래자랑, 전국각설이품바 왕중왕전, 중년건강클럽대회 등이 주요 행사로 열린다. 코레일과 연계한 무안연꽃축제 특별관광열차 운행, 무안시티투어 등도 연꽃축제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 코스다.

또한, 무안군은 연꽃축제 장소 인근의 야외물놀이장을 활성화하고 지난 6월에는 오토캠핑장을 개장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있는 축제를 위해 준비 중에 있다. (061)450-5472

한국 최고(最古)의 인공연못인 궁남지에서도 연꽃 개화시기에 맞춰 연꽃축제를 연다. 부여군은 7월 8일부터 19일까지 제14회 부여서동연꽃축제를 '연꽃愛 빛과 향을 품다'를 주제로 개최한다.

2015, 2016 2년 연속 대한민국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선정된 부여서동연꽃축제는 백련, 홍련, 수련, 가시연 등 10만여 평의 연지(蓮池) 50여 종의 다양한 연꽃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

개막식에서는 서동과 선화공주와의 사랑이야기와 서동이 무왕으로 등극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창작 국악 뮤지컬 '서동의 노래'가 상연되며, 백제역사문화지구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도 열린다.

주요행사로는 △제2회 서동요 전국 창작동요대회 △MBC 사랑 콘서트 △부여군민 노래자랑(다문화 사랑편) △백제기악 미마지 탈춤극 공연 △부여생활체조 연합회 정기공연 △제2회 부여청소년 예술제 '서동의 꿈' △제14회 서동연꽃축제 사생대회 등이 진행된다. (041)830-2211

경기 양평군 공공기관인 세미원도 오는 7월 31일까지 '마음을 아름답게'를 주제로 연꽃문화제를 개최한다.

전시 프로그램으로는 △오감으로 만나는 연꽃(백련지, 홍련지 등) △물빛 위에 생명 피다- 정크아트 전 등이 진행되며, 연잎밥 · 연잎차 체험, 시각장애인 사진촬영대회 등도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031)775-1835

이와함께 (사)우리문화연구원(이사장 성우)도 오는 7월 16~17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전주 연꽃문화제'를 개최한다. 신성민 기자



'동서문화 십자로' 아프간의 황금문화

국립중앙박물관, 9월 4일까지 특별전
베그람 등 4곳 유적 시기적 조망
관련 유물 231건 한국 최초 전시
신라 금관 기원 만나는 유물 '눈길'



틸리야 테페 6호분 출토된 금관. 신라 금관의 기원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유물이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교차했던 아프가니스탄의 찬란했던 문화를 만나보는 전시회가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은 7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특별전 '아프가니스탄의 황금문화'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국립아프가니스탄박물관의 소장품 231건을 중심으로 고대 아프가니스탄의 역사와 문화를 국내 최초로 소개하는 전시이다.

이란 고원 동북단에 위치한 아프가니스탄은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파키스탄 등에 둘러싸인 내륙 국가이다. 지형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한가운데 위치한 이 지역은 서쪽의 유럽, 동쪽의 중국, 남쪽의 인도를 연결하는 문명의 교차로이자, 실크로드의 요충지였다. 토착적 요소와 외래적 요소가 상호 융합하여 탄생한 아프가니스탄의 고대 문화는 한국을 포함한 주변 지역의 문화 연구에도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테페 푸롤 · 아이 하눔 · 틸리야 테페 · 베그람 등 네 곳의 유적지를 시기별 흐름에 따라 조망한다.

한국인에게 눈길을 사로잡는 유물은 '황금의 언덕'이란 뜻의 틸리야 테페 유적 6호묘에서 발굴된 '금관'이다. 이는 신라 금관의 기원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물로, 관련 학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쿠샨 왕조의 여름 수도로 번영했던 베그람 유적도 눈길을 끈다. 베그람은 7세기 중국의 현장스님이 기록한 '카피시국'의 도읍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1세기경으로 추정되는 궁전터에서는 많은 양의 유리기, 청동기, 석고, 칠기 등 다채로운 문화유산이 출토됐다. 실크로드와 해상무역으로 번영했던 도시의 모습에서 활발했던 동서 문물 교류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전은 2006년 파리의 기메박물관을 시작으로 워싱턴의 내셔널 갤러리, 뉴욕의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런던의 영국박물관 등 지금까지 11개국 18번째 기관에서 전시를 이어왔다. 한국은 개최 12번째 국가로, 특히 올해는 순회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도록에는 한국 문화와의 연관성을 살피는 다양한 칼럼을 수록하여 전시 이해도를 높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전시는 고대 아프가니스탄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새롭게 담아내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와 연계한 특별강연으로 오는 7월 21일 대강당에서 민병훈 前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부장의 '출토 유물로 본 아프가니스탄과 고대 한국문화'를 진행한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의 황금문화' 특별전은 9월 27일부터 11월 27일까지 국립경주박물관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02)2077-9000 신성민 기자

사비백제 상징 '부소산' 출토 유물 한자리에

국립부여博, 10월 3일까지 부소산 특별전

백제유적지구 등재 1주년 기념
금동삼존불입상 등 유물 전시



부소산 출토 '정지원'이 새겨진 금동삼존불입상(보물 제196호)

사비백제의 상징인 부소산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국립부여박물관(관장 구일회)은 7월 5일부터 10월 3일까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해 특별전 '부소산'을 개최한다.

사비(現 부여)는 한성, 웅진에 이어 백제의 세 번째 도읍지로, 부소산은 사비백제 왕실의 후원이자 배후성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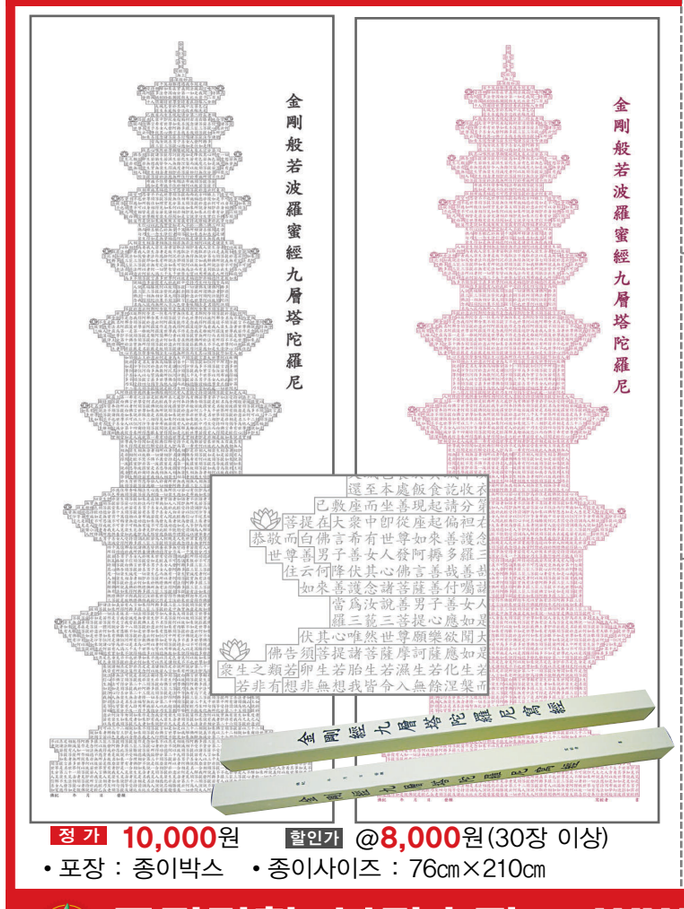
아울러 부소산은 부여의 역사와 문화의 산실로 조선시대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고문헌에서 부여의 '진산(鎭山)', 혹은 '주산(主山)'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소산에는 사비백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와 문화의 흔적들이 공존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보물 제196호 '정지원이 새겨진 금동삼존불입상'과 '금동광배' 등을 비롯해 부소산에서 발견된 다양한 백제의 문화유산들이 소개된다. 이들 유물들은 백제의 불교 문화와 귀족 문화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들이다.

또한 부소산성에서 출토된 다양한 무기류를 통해 사비백제의 방어체계와 최후의 항전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부여신궁' 건설 공사 중에 부소산에서 발견되었던 청동제 일괄유물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소개된다.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백제와 백제의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전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통일신라 이후의 부소산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특)대형금강경 9층 탑사경지 〈먹/적, 종이박스포함〉



정가 10,000원 할인가 @8,000원(30장 이상)
• 포장 : 종이박스 • 종이사이즈 : 76㎝×210㎝



영가옷 B형-남 정가 1,200원 영가옷 B형-여



영가옷 C형-남 정가 1,000원 영가옷 C형-여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수자영가옷 정가 800원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00원



예수재함A (50개 1박스)



예수재함B (50개 1박스)



한지접은 위패(대/중/소)/인쇄접은 위패(대/소)
정 가 30,000원 / 30,000원(100개)
할인가 @270원 / @270원(1000개이상)



한지 · 인쇄접은영가옷(남/여)
정 가 30,000원(100벌)
할인가 @270원(1000벌이상)



종이신발(남/여) 1켤레
정 가 1,500원
할인가 1,300원 100개이상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